

## 김주형 방망이 터지기만...



### 프로야구 주간 전망대

**‘부상병동’ KIA, 목동·문학 힘겨운 원정길**  
**‘이용규 대체’ 신종길 빠른발에도 큰 기대**

투·타의 잇박자로 5위에 머물고 있는 KIA 타이거즈가 5월 첫 원정에 나선다. 관전 포인트는 부상 공백을 메울 ‘신형 엔진’의 원활한 가동 여부. 김주형 신종길의 활약 강도가 상위권 진입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3~5일 목동에서 만나는 넥센 히어로즈와 올 시즌 상대 전적은 2승1패. 첫 3연전서 우위를 점하기는 했지만 KIA는 넥센의 끈끈한 팀플레이에 고전해왔다.

주말 문학에서 만나는 SK는 16승 6패의 고공행진으로 1위 독주 중이다. KIA는 지난달 SK와의 홈대결에서 수비 실수와 성급한 승부로 자멸, 2승을 헌납했다.

부진을 거듭했던 좌완 양현종이 지난 등판에서 6이닝 1실점의 깔끔한 투구로 부활을 알렸고, 백전노장 이대진이 1일 경기에서 부진했던 김희철 대신 마운드에 노련미를 더할 예정이지만 이번 주에도 타선이 KIA의 고민거리.

지난달 17일 나지완과 이용규가 각각 비플 골절

과 허벅지근육과열로 자리를 비운 뒤 KIA 타선의 짜임새가 떨어졌다. 권고정술을 받았던 나지완은 2일 퇴원을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이용규는 재검진결과 OK사인을 받았지만 재발 우려 때문에 합류 속도를 조절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훈련과 실전 감각까지 고려한다면 다음주에 1군 복귀가 가능하다.

4번 타자 최희섭의 몸 상태도 좋지 않다. 최희섭은 왼쪽 어깨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지난 주말 롯데와의 경기에서 1루수가 아닌 지명타자로 출전했다. 타격도 신통치 못했다. 최근 5경기에서 15타수 1안타에 그친 최희섭은 5개의 볼넷을 골라냈지만 삼진도 5개를 당해 중심타자로서 체면을 구겼다.

내야수 김주형과 외야수 신종길이 어떤 활약을 보이느냐가 원정 6연전의 승패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 김주형과 신종길은 나지완과 이용규의 부상 공백을 커버할 대체재로 주목받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 2011 프로야구 중간순위 (5월 2일 현재)

팀	경기수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1 SK	22	16	6	0	0.727	-	1승
2 두산	22	13	8	1	0.619	2.5	1패
3 삼성	24	13	11	0	0.542	4.0	1패
3 LG	24	13	11	0	0.542	4.0	1패
5 KIA	24	11	13	0	0.458	6.0	1패
5 넥센	24	11	13	0	0.458	6.0	1승
7 롯데	24	8	14	2	0.364	8.0	1승
8 한화	24	7	16	1	0.304	9.5	1승

특히 시범경기에서 물오른 타격감을 보였던 신종길의 시즌타율은 0.146에 그치고 있다. 출루율이 떨어지면서 특유의 기동력을 보여줄 기회도 줄었다. 신종길의 기동력은 넥센과 SK의 촘촘한 방어망을 뚫는 데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

김주형의 역할도 커졌다. 김주형은 아직 마수걸이 홈런을 터트리지 못했지만 8개의 2루타로 이 부문 공동 1위에 올라 있는 우타 거포이자, 최희섭을 대체할 1루수 자원이자, 지난 주말 롯데와의 홈경기에서도 김주형은 1루수로 선발 출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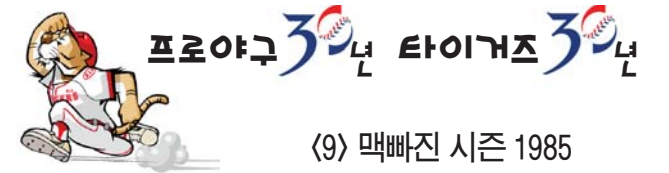
최희섭의 부상이 깊어질 경우 김주형의 출장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관건은 얼마나 잘 치고, 얼마나 잘 달리느냐. 김주형과 신종길의 방망이와 발에 5월 첫 주 호랑이 군단의 명운이 걸려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주형



(9) 맥빠진 시즌 1985

한국프로야구 4년차를 맞이한 1985년의 챔피언 결정 방식은 전년도 삼성 라이온즈가 보여준 ‘비선사적인 플레이’의 재현을 제하기 위해 종합승률제로 바뀌었다.

종합승률제는 (1)전·후기 종합승률 1위를 차지한 팀은 무조건 한국 시리즈에 올라가고 (2)종합승률 1위 팀이 전·후기 중 한 기를 우승하고 종합승률 2위 팀이 나머지 기를 우승을 차지했을 경우 양 팀 간에 한국시리즈를 펼쳐 (3)종합승률 1위와 전·후기 우승팀이 모두 다를 경우(1984년의 성적) 바로 이란 예에 해당) 전·후기 우승 팀 간에 플레이오프를 거쳐 그 승자가 승률 1위 팀과 한국시리즈를 거행하며 (4)한 팀이 전·후기 리그를 모두 우승할 경우 한국시리즈를 치르지 않고 우승이 확정되기로 한 제도였다.

그런데 삼성 라이온즈 때문에 그토록 머리를 쓰고 만들어 놓은 제도였는데, 또 그 삼성 라이온즈가 종합승률제의 허를 찔러 한국 시리즈를 무산시켜버리는 초유의 사태를 연출하고 말았다.

### 삼성 견제하려 ‘종합승률제’ 도입 전·후기 우승 싸움으로 KS 무산

삼성 라이온즈는 전기에는 2위 OB 베이스를 11.0게임 차로 제치고 승률 1위(0.741), 후기에는 2위 롯데 자이언츠를 5.0게임 차로 제치고 역시 승률 1위(0.673)를 차지하며 한국 시리즈 자체를 무산시키며 통합우승이란 기록을 만들었다.

삼성 라이온즈의 ‘천하통일’의 주역들은 마운드에서는 다승 공동 1위(25승) ‘쌍두마차’격인 토종 김시진과 제일동포 김일용, 구원왕(28SP) 권영호와 양일환·황규봉·진동환 등이 발군의 활약을 했다. 타격에서는 타율(0.373)·출루율(0.467) 1위 장효조, 타점(87)·승리타점(13)·홈런(22) 1위 이만수와 톱타자로 MBC에서 영입한 이해창, 장태수·정현발·김성래·배대웅·박승호·김한근·허규욱 등 등장한 멤버들이었다.

‘동네북’ 삼미 슈퍼스타즈가 4월30일 개막전인 부산 롯데전서 승리를 따낸 이후 2승째를 올리는 데는 딱 한 달이 걸렸다. 삼미 팬들이 18연패를 당하는 모습을 그저 낯을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불행한 일도 1985시즌에 일어난 역사였다.

1985년의 불멸의 스타는 삼성 선수들의 표 본산 속예 홈런 공동1위(22)와 장타율 1위(0.575)로 페넌트레이스의 MVP의 영광을 차지한 김성현(해태), 전설의 원년을 맞이한 ‘무등산 폭격기’ 신동열(해태, 7승4패8세이브, 방어율1.70), 승률 1위 윤석환(OB), 재치와 수비의 달인 김재박(MBC) 그리고 타이거즈 맨의 유일한 신인왕 이순철(해태) 등이 기억된다.

김재요

<조선이공대 교수·한국야구기록연구회장>



최경주

## “뒷심 부족했나...”

‘탱크’ 최경주(41·SK텔레콤)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취리히 클래식(총상금 640만 달러)에서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최경주는 1일(현지시간) 미국 루이지애나주 에이번데일의 루이지애나 TPC(파72·7341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3개를 묶어 최종합계 13언더파 275타로 공동 3위에 올랐다. 선두에 2타 뒤진 공동 4위로 4라운드를 출발한 최경주는 16번 홀(파4)에서 버디를 낚아 1위와 1타 차를 만들며 우승 가능성을 높이기도 했으나 17번 홀(파3)에서 보기가 나오는 바람에 추격에 제동이 걸렸다.

올해 2월 노던 트러스트오픈(공동 7위), 3월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션(공동 6위), 4월 마스터스(공동 8위)에 이어 올 시즌 들어 네 번째 상위 10위에 든 최경주는 지난해 9월 BMW 챔피언십 공동 3위 이후 가장 좋은 성적을 냈다.

3라운드까지 공동 선두를 달린 버바 왓슨과 웹 심슨(이상 미국)이 나란히 15언더파 273타를 기록, 연장 접전을 벌인 끝에 왓슨이 연장 두 번째 홀에서 버디를 잡아 우승했다. 위창수(39·테일러메이드)는 최종합계 8언더파 280타를 기록해 공동 16위에 올랐다. /연남뉴스



## 준우승 만 6번 지독한 징크스

### 김송희 LPGA 투어 에브넷 역전패

김송희(23·하이트)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에브넷 클래식에서 또 우승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송희는 1일(현지시간) 미국 앨라배마주 모빌의 RTJ 골프트리얼(파72·6502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1타를 줄여 합계 8언더파 280타를 찍어냈지만 우승에는 이르지 못했다.

마지막 라운드를 공동 선두로 시작한 김송희는 무려 5타를 줄이며 기세를 올린 마리아 요르트(스웨덴·10언더파 278타)에게 역전을 허용해 준우승

에 머물렀다.

이로써 2007년 LPGA 투어에 데뷔한 김송희는 여섯 번째 준우승을 기록했다.

두살짜리 딸을 둔 주부 골퍼 요르트는 LPGA 투어 통산 다섯 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상금 19만 5000달러를 받았다.

최나연(24·SK텔레콤)은 4라운드에서 3타를 줄여 선두를 추격했지만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과 함께 공동 3위(7언더파 281타)에 머물렀다.

작년 KIA 클래식에서 우승한 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무대에 뛰어든 서희경(25·하이트)은 함께 5언더파 283타를 쳐 양희영(22·KB금융그룹)과 함께 공동 6위에 자리했다. /연남뉴스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셀프아트 단열결로방지 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 난방비 절감효과,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꿔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시공전 → 시공후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특허 제0497254호 / 특허 제10-0562035호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 WWW.IPALG.COM 또는 이파엘지.kr

광주전남 (062) 511-0444  
 대리점 010-6603-0405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

광주 등산장비의 자존심 **백두산악**

왜 백두산악에 열광하는가?

- 하나 초년부터 전문 산악까지  
과묵한 토크로 보라!
- 둘 명품 수입류부터 모든 캠핑  
장비까지 다 있다!
- 셋 거품이 없고 더 쓰고 믿을 수 있다!

지하철: 김대중 컨벤션 역 3번출구에서 공평방면 600m 위치  
 버스: 19, 20, 38, 62, 73, 160, 1000 서창입구 정류장 하차

직원 수시 모집

(주)백두산악 광주아울렛점 문/의/전/화 ☎ (062) 267-2562  
 ❖ 기업체 판촉물 상담환영 ❖